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 국내/해외의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순복음 큰빛 교회 - 김승희 목사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사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탄)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5월 2일

##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 주일에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예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 1:30PM / N-201

YouTube tfbc

www.tfbc.org

###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 7:00PM / 베들레헴

### 금요일모임

Youth .....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 6:00PM / 각교실

### 새벽예배

한어부 .....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 화-토 / 6:00AM / N-202

###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 주일예배

##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인도: 전우일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 경배와 찬양
- 1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50장 “큰 영화로신 주”
- 3부: “내 평생에 가는 길”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기도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재찬 집사

봉헌찬양

1,3부: 377장 “예수 따라가며”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창세기 26:25

제목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찬송

1,3부: 268장 “은 세상 위하여”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9-10)

8. **헌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수수료 헌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헌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자리 등을 안내하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이나 공동체장 목사님 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교적부 정보를 업데이트** 중입니다.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된 성도들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 주시기나, 교회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tfbc002@gmail.com](mailto:tfbc002@gmail.com))
-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 **안전 운전:** 84번가에서 데이케어쪽 게이트나 M스트리트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교회에서 84번가로 나갈때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단 단체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사역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TFBC 예배 캠페인:**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도로 준비하기 (예배 10분 전부터)
  - 2)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기
  - 3)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4) 예배 장소 미리 정하고 정돈하기(온라인 예배 경우)

#### ◆ 교우동정(Compassion) ◆

- ◇ **중보:** Tom Bayliss, Andrew Kezele, Floyd Richardson, Etienne Rudegeair, Anthony Milas, Eric Mose, 최재돈, 오창자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 공동체 소식

##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WORSHIPPING CHURCH 2021

##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아청년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 새벽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예배를 제공합니다.

###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분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리회 안내:** 워싱턴 주정부가 5/3(월)에 피어스 카운티의 코로나방역 단계를 재평가를 할때, 피어스 카운티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무처리회는 5/16(주일, 오후1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부와 교회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안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삶 5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 영어부 새가족 교육: 5/2(주일) 오전 11시**에 N209호에서 4주간 동안 있습니다. (문의: 프랭크 토레스 목사님)
- Mother's Day(어머니 주일) 예배: 5/9(주일) 1부, 2부, 3부** 각각 예배 드립니다. 연합예배가 아니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국가 기도의 날 (5/6. 목): 매년 5월 첫번째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 (1)회개 운동과 코로나19 종식 (2)미국의 지도자와 평등법 저지, 아시아 증오범죄 중단 (3)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 (4)한국 교회와 북한**

# 수요성령예배

##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철옥핏서 집사  
제목 [누가복음 강해 21: 평강]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성경본문 누가복음 6:39-49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 봉사위원 Volunteer

	이번 주	다음 주
기도 Prayer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철옥핏서 집사	1부 인숙랭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수요 영숙고령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분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5/3(월)	출애굽기 12:29-36	남궁곤 목사	5/4(화)	출애굽기 12:37-51	전우일 목사
5/5(수)	출애굽기 13:1-10	안재훈 목사	5/6(목)	출애굽기 13:11-22	정주영 목사
5/7(금)	출애굽기 14:1-14	전우일 목사	5/8(토)	출애굽기 14:15-31	남궁곤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 **본문:** 시편 31:14-15

오늘 본문 [시편 31편] 안에는 다윗의 ‘인생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절 상반절에서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최고의 ‘인생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와 닿는 이유는, 당시 다윗을 둘러싼 현실은 인생 최고의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3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2 “내가 있어버린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을 마치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비방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 ‘내가 마치 깨져서 버려진 그릇과도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나약하고 무능한 실체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몸 부림 치고 있는 다윗의 외침들이 오히려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 다윗도 두려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돌 몇 개만 들고 뛰어 나갈 정도로 태생적으로 용맹한 사람입니다. 늘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두려움 따위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 만큼은 언제나 ‘죽음’ 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도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없는 자 취급하고, 깨어진 그릇과 같이 여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5절의 다윗의 짧은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앞으로의 ‘내 시간’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핑 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다윗처럼 원수들과 핍박자들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똑같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38-39)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예수님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난을 인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심한 고통으로 숨이 끊어지기 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다 참아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알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윗과 같이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고난 중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던 다윗의 외침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인생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날 때 마다, 금방이라도 상처받고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이기에, 다윗을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오직 나를 건지시며,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도 사방에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죽음]을 직면했던 것처럼, 코로나도 사실 [죽음]을 전제로 한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바라보았던 ‘미래’ 주의 손안에 있는 시간을 함께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세상은 말하기를, 지금이 바로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고난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하고 깨진 그릇’정도 밖에 안 되기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외롭고 비참한 시대가 될 것이라 몰아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의 미래 즉,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 인생 말씀]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서 권면하듯이,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기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처럼 기도하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씀 하신, ‘하나님께서 쌓아 두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독상 질문]**

1. 당신의 ‘인생 말씀’이 무엇입니까?
2.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가 무엇일까요?